

재미있게 과학상식



땅 속에서 자라나는 금 덩어리

금 덩어리가 마당에 쏟아놓은 감자처럼 자랄 수 있다는 이색 주장이 호주의 연구원들에 의해 제기됐다.

땅 속 깊은 곳에서 특정 미생물들이 금을 조금씩 모아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하여, 이렇게 만들어진 금 덩어리는 공화 작용에 의해 지표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어떤 미생물이 금을 침전시키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며, "수확에 필요한 만큼 금을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수확만 남이 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재 세워 보관하는 것이 좋다

아재를 냉장고에 넣을 때 누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세워서 보관하는 것이 좋을까 일본의 한 농업시험장에서 이를 실제로 실험해 보았는데, 시금치나 아스파라거스, 파추, 상추 등 잎허부터 땅에 처 있는 형태의 채소는 그대로 세워 보관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만약 누워서 보관을 하게 되면, 채소 내부에서 원래 위치대로 일어 서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당분인 아미노산의 소모가 늘어나 맛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반면 이들 동안 세워서 보관한 시금치는 누어 놓은 시금치에 비해 아미노산의 함량이 1.8배나 높았다.

연인을 부를 때는 최대한 저음으로..

멀리 있는 연인을 부를 때 어떻게 하면 내 목소리를 잘 들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것에 힘을 주고 낮은 저음으로 불러야 연인의 귀에 더 잘 전달된다.

고음은 파장이 짧기 때문에 먼저나 반사면을 만나면 바로 난반사가 일어나 멀리 퍼지지 못 하지만, 저음은 파장이 길어서 방해를 덜고 멀리까지 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콘서트홀에 가면 고음부의 악기보다 저음부의 긴 파장을 가진 악기 소리가 멀리까지 잘 들리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때문이다.

번갯불에 콩을 볶아 먹을 수 있을까?

'번갯 불에 콩 볶아 먹는다' 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피연 가능한 것일까?

번개의 전기량(電氣量)은 보통 1회에 전압 10⁹V, 전류 수만A에 달한다. 만약 보통 5,000A의 뇌뢰일 경우 100W의 전구 7,000개를 8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셈이 된다. 따라서, 번갯불이 가진 그 에너지 때문에 콩을 튀기란 좀 힘들 듯 싶다.